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상쾌함과 시원함을!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고민을 멈추고, 가장 시원한 십자가 그늘로 나아오십시오(사 55:1). 그 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산속 휴양림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과 파도치는 바닷물보다 더 시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요 7:38). 주일에는 1부예배(오전 7시)로부터 찬양예배(오후 5시)까지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보혈의 폭포수로 온 교회가 시원합니다. 또한 새벽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쉼터인 수요일·2부예배, 온 세대가 어울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금요찬양집회에 나오면 성령의 바람(행 2:2)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 29:2).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진노에서 구원을 받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여 주는 근본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새 관계를 맺는 원천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히 4:14,16).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도 현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된다. 악인들은 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롬 2:5~6).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롬 5:9)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새 세계 안에 받아들여졌기에 문제가 없다(살전 1:10).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남아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완성이 된다(롬 5:10). 확복케 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고후 5:18). 하나님과 화복케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감점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새 위치, 즉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복하게 되었다. 사실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함과 ‘하나님과 화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이 놀라운 은총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하다(롬 5:9~10).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복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롬 3:2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로마서 5장의 시작이며 결론

이다(롬 5:11). 여기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병행하여 설명한다. 아담은 그리스도 이전 죽음의 세계, 그리스도는 새 세계 곧 생명의 세계의 머리가 된다(롬 5:12).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은 이 죄를 통하여 들어왔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의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다.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 예수다(요 4:42). 인류의 운명이 파멸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이 운명 속에 사는 자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이며 죄 또는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이 범하는 죄를 보해서 죄가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요, 자신은 죄의 종임을 깨닫는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고 행하나 인류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자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다. 우리가 죄를 언급할 때에는 법과 명령이 존재해야만 한다(창 2:16~17). 한 사람의 행함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롬 5:13~14).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졌다(롬 5:17). 죽음은 권세로 통치자이며 파괴하는 세력이다. 진노는 파괴하는 능력이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게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가 곧 죄인이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의 저주’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다. 아담이 옛 세상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마 11:3~6). 아담 안에 있는 세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서로가 상대적으로 서 있다. 옛 세상은 죽음의 왕국이요, 새 세계는 생명의 왕국이다(롬 5:18).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여 주는 근본이며 하나님과의 새 관계를 맺어 주시는 원천이다. 아멘.

I'M WILLING, BE CLEANSED

⁽¹⁾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large crowds followed Him. ⁽²⁾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³⁾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⁴⁾And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present the offering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Matthew 8:1~4)*

Right after Jesus preached His now widely known and loved Sermon on the Mount(Mt. 5~7), the crowds that surrounded Him were totally astonished, "for He was teaching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ir scribes"(Mt. 7:29).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large crowds followed Him"(Mt. 8:1). These crowds were very familiar with Moses' Law, but after hearing Jesus they really got a blessing from His message. During Jesus' ministry, after He revealed the truth, miraculous things usually followed. The evidence of His authority and power came through His healing of the sick. In today's message, Jesus had just finished His sermon when He healed a leper. Lepers were not allowed into the general population. They were strictly isolated because people viewed them as unholy. This time,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a leper approached Jesus for help.

The leper braved the crowd. This multitude would normally have kicked the leper out. They would have not tolerated his presence, but because they were blessed from Jesus' message their hearts were open. They were spiritually clean, and therefore could accept an unclean leper coming to Jesus Christ. Romans 3:9~10 say,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Everyone has sinned. We are all unclean. We are all sinners, "But the Scripture has shut up everyone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Gal. 3:22). The Bible clearly tells u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Rom. 6:23). Our sins have earned us death. No one can escape or avoid it. Hebrews 9:27 reminds us,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So many Christians have no compassion for the unclean. Today's churches and pastors want Jesus Christ to save respectable people, but Jesus came to seek and save the unrespectable,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Lk. 19:10). God says, "I will seek the lost, bring back the scattered, bind up the broken and strengthen the sick; but the fat and the strong I will destroy I will feed them with judgment"(Ezek. 34:16). Godly sermons prepare us to care and to serve all who are lost.

The leper came to Christ. Today's Bible verse says,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Mt. 8:2). The Bible doesn't tell us if this man actually heard one of Jesus' sermons or if he

just heard of Jesus through others. The Bible does tell us that this brave leper came and worshipped Jesus. He called Him "Lord", just like the thief on the cross(Lk. 23:42), and the adulterous woman who was about to be stoned(Jn. 8:11). This leper believed Jesus could do anything, and Jesus was moved with compassion for him(Mk. 1:41). Compassion is to feel what another feels. Jesus identifies with the sufferings of sick and dying people. He understands human pain and sorrow. Jesus touches the untouchable! Who have you touched recently for Jesus? Have you ignored the untouchables?

The leper was made clean.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And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present the offering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Mt. 8:3~4). Jesus longs to make people clean, and none are too defiled for Him to cleanse. 1Corinthians 6:9~11 says,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were washed, but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pirit of our God." Jesus touched the leper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gone. Can you imagine the joy that filled this man's heart? The crowds were already wowed by Jesus' message; can you imagine their amazement and excitement of witnessing leprosy disappear on a person? Have you experienced the miracle and joy of being cleansed? 1John 1:7~9 say,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My dear friend, we are all like lepers, but instead of our disease showing itself on the outside, it infects our insides. We need to be brave about our faith and follow Jesus always. We need to confess our sins and be cleansed every day. No matter what your past or present situation, Jesus can make you clean. Please drop your pride and pick up your cross. If you are willing to make Jesus your Lord and Savior, He is willing to cleanse you and make you into a child of God. Amen. 

| 다음 주일 설교 |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㉑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1~4)



김성만 목사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마 5~7장)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 7:29).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 8:1). 이 무리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 다.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후 늘 기적적인 일들을 행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나병환자를 고 치셨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병환자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 나온 것입니다.

나병환자는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다

나병환자는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 사람들은 나병환자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 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부정환 나병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9-10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나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 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 3:22).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삯은 사 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우리의 죄들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죽음에서 도망치거 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27은 우리를 깨닫 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 리니.”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천한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 늘날의 교회들과 교역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 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 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 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겔 34:16). 복 음적인 설교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비 시킵니다.

나병환자는 그리스도께로 갔다

나병환자는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오늘날의 성경본문은 말씀합니다. “한 나 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다 하거늘” (마 8:2). 성경은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의 설교를 들었는지 혹 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 다. 성경은 이 용감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다는 사실만 말씀합 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눅 23:42)와 간음하다 잡힌 여인(요 8:11) 처 럼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이 무엇이 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막 1:41). 동정심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 병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 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십니다! 여 러 분은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외된 사람 들을 모른 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병환자는 깨끗함을 입었다

나병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 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 8:3~4).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 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 다. 고린도전서 6:9~11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율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 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지시자마자 그의 병은 치료 되었습니 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무리는 이미 예수 님의 말씀에 열광했었습니다. 나병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 사람을 보며 사람 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흥분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죄 사함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요한일서 1:7~9은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 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 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병들 어 있는 나병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 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 러분의 과거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 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까이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 께이 깨끗하게 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7. 29)

놀라운 이상 (이사야 6:1-8)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은 위협적이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였다. 북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했으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과 같은 영적 암흑기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분통해 하였다. 그러나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이사야의 분통함에 큰 문제가 있음은 6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 신호탄이 남유다의 왕 웃시야의 병사(病使)이다.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참혹한 현상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나아가 기도하였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이상을 보았다.

●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사 6:1~2). 이전까지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참혹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이사야는 그들의 영적 타락을 보며 애호하였을 뿐 정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것으로 가득찬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 정작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사 6:3).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상을 모세도 보았으며 솔로몬도 보았다(솔 3:1~5 ; 민 14:21 ; 신 33:16 ; 대하 7:2~3).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레 11:44).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벧전 1:16).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으나(마 28:18),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 있다. 믿음의 눈을 열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후에 우주의

영광을 보았다(사 66:1).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때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된다.

●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엿더라”(사 6:5).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은총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전 2:3). 동시에, 불가능한 자신의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사 6:8 ; 빌 4:13). 자신의 죄인됨, 무능을 철저히 깨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난다(고전 1:27~29). 십자가 앞에 설 때 죄인 중의 괴수인 자신을 보게 된다.

● 이사야는 다른 자들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회복하였다(사 6:6~7). 이제 이사야는 자신이 만든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혼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다(사 6:8).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시나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행 9:6). 예수님은 바울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특별한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 예수님은 단지 가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마 9:36~38 ; 빌 1:21).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날 때 주님의 종인이 된다.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아니며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잠 10:5)인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바라보지 말자. 또한 영적으로 참혹한 시대를 바라보며 낙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말자. 이사야가 성전에 보았던 놀라운 이상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회개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자.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참된 기쁨이 있다(시 126:5~6).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전하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82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명령하다 (15:1~15)

유대공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였다(막 14:64). 이후에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다(막 15:1).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범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처벌하였다(눅 13:1).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에게 끌고 간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간략하게 대답하였다(막 15:2). 이어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막 15:3~5).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매우 놀랐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막 12:17).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 근거는 로마 정부에 항거했다는 정치적 이유였다(막 15:26).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회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리이다”(눅 23:2)라는 정치적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하며 죽이려고 했다.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딱히 여겨 당시 전례대로 풀어주고 싶었지만 종교지도자들의 조종을 받은 유대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다(막 15:6~14). 빌라도는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키(막 15:10)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상황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처형을 명명하였다(막 15:15).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인도받기 전까지 심문과 재판의 과정에서 침묵하였다. 억울한 모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며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막 10:33~34,

14:36).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이었다(사 53:7).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종교지도자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중시하는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기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꾸며 모함하였다(막 11:15, 17~18).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거짓 유죄와도 협력하였다(요 18:39).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선택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선동하여 강도와 폭동의 주범인 바리새가 아닌 예수님을 죽였던 배후 조종자였다(마 27:25).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종교지도자들의 실체였다. 그리고 이들의 속임수가 바뀐 선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함이 오늘의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었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마 1:21 ; 행 7:45 ; 히 4:8).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막 10:45).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가 구원 언약의 증거였다(막 14:24). 그러나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였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처형을 명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시해가려 외면한다. 세상에 초점을 둔다면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영원한 삶을 진실로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자. 깨끗한 소망(요일 3:3)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참수하며 걸어가자. 아멘.

* 매주 월요일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선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사역지에 있는 내내 저희와 함께하신 주님을 느꼈습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의 선한 눈망울과 눈물로 기도 받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역자를 주셔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를 통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두릅 건너편에 집이 있는 눈두릅을 건너갔으나 길이 물에 잠겨 있어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 어린 여자아이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장면을 본 저희 팀원들은 눈물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요.

오후 사역에서 만난 눈이 먼 두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접시키게 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혜(권사, 19교구)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선교 팀원이 되기 전에는 경계가 많아 선뜻 준비하지 못하였다. 항상 기도 중에는 주님 앞에 다들어지고 다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팀장이 교체되고 팀원이 빠져서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져 이번 선교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하였는데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어수선한 풍경에 적응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건회를 통하여 힘을 얻어 사역지로 향하였다. 그들은 순하고 맑아 우리의 서툰 말을 잘 들어주었고, 한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를 예뻐하고 이쪽 저쪽에서 기뻐하더라. 쭈뼛거리며 뒷걸음치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한 영혼이라도 놓칠까 열심히 다다간다. 기뻐거리는 자들과 아이들을 손짓으로 부르며 웃으면서 다다간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들어봐어도 더 들으세요." 팀원들이 거들어 준다.

복음을 외치다 보면 자기들끼리 귀속말을 한다. 준비한 찬양을 힘 있게 불러서 귀를 기울이게 한다. 가는 곳마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 본다. 한 마을에 갔을 때 인가가 드물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집 안쪽에 마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 또 내 생각이 앞섰구나.' 회개하였다. "주님,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염지자(집사, 9교구)

순종하며 심부름만 하게 하셨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과 위로를 누게나 배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놀살겠네." 입으로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되, 성령님께서 앞서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근대 장관되신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루어 놓으신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심부름만 하게 하셨다.

선교준비가 미약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내가 약할 때 곧 감함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에 입했을 때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신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함께 하셨다. 학교사역을 세 번 하게 하고 수업시간에 교실에 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다음날은 모든 교사들이 운동장에 나와 전교생을 두 무리로 나누어 줄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어 느리나무 아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 교사들이 "아멘."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따라하라고 하자 울음을 하면서 눈동자를 반짝이며 복음을 들었다. '불교 국가인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케 하셨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천국입문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자들이구나.' 느끼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계속 따라다니다 자기 집에 도착하자 뒤뜰에서 일하던 엄마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였고, 온 가족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모자가, 오누이가, 입산부가, 할머니가. 공사장장에 일하던 청년들이 일손을 놓고 복음을 들었다. 또 어느 부부는 너무 반갑게 맞으며 복음을 들었고, 들관에서 점심 식사할 때 찾아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릎에 동전만한 구멍이 나 있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자 기뻐 돌아갔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 입혀 주셔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청년을 의자에 앉히고 큰소리로 외치며 복음을 전할 때 꾀악 못하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하고 복음을 받았다.

이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온 교회와 동역자들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차에 오르면 찬송 부르고, 내리면 복음 전하고 찬송가 한 권을 다 부르고 또 불렀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할 수 있었고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 "나의 생명, 손과 발, 음성, 보화,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심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전옥순(권사, 1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8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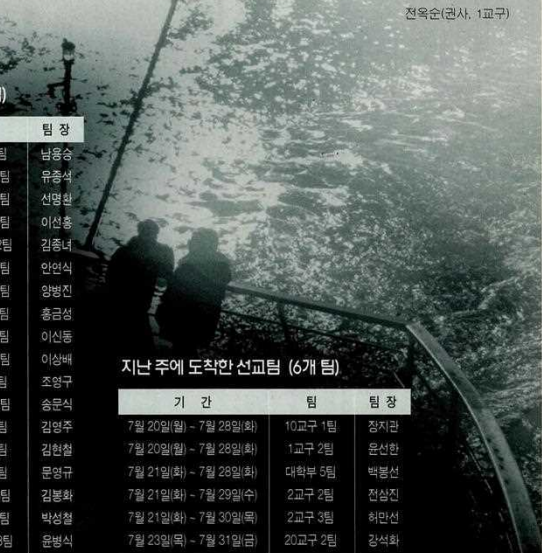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7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3일(월) - 8월 8일(토)	중동1부 3팀	현준봉
8월 3일(월) - 8월 8일(토)	고동부 3팀	이재호
8월 3일(월) - 8월 12일(수)	21교구 1팀	임연수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중동2부 4팀	남용철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중동2부 5팀	함은자
8월 4일(화) - 8월 12일(수)	고동부 4팀	홍순길
8월 4일(화) - 8월 12일(수)	대학부 9팀	문정숙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3교구 1팀	한홍연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3팀	황광진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4팀	정재영
8월 5일(수) - 8월 13일(목)	7교구 3팀	박석산
8월 5일(수) - 8월 13일(목)	4교구 3팀	김요한
8월 6일(목) - 8월 14일(금)	8교구 2팀	이경화
8월 6일(목) - 8월 14일(금)	11교구 3팀	김동현
8월 6일(목) - 8월 14일(금)	23교구 2팀	문경안
8월 7일(금) - 8월 15일(토)	15교구 3팀	박우현
8월 9일(토) - 8월 14일(금)	청년1부 3팀	나영실

기 간	팀	팀 장
7월 27일(월) - 8월 4일(화)	9교구 3팀	남중승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5교구 1팀	유준석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4교구 2팀	신명환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7교구 3팀	이선홍
7월 28일(화) - 8월 4일(화)	청년1부 2팀	김종녀
7월 28일(화) - 8월 5일(수)	18교구 2팀	안연식
7월 28일(화) - 8월 5일(수)	22교구 2팀	양병진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6팀	송금성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7팀	이신동
7월 29일(수) - 8월 6일(목)	13교구 2팀	이상배
7월 29일(수) - 8월 6일(목)	9교구 4팀	조영호
7월 30일(목) - 8월 7일(금)	10교구 2팀	송문식
7월 30일(목) - 8월 7일(금)	5교구 2팀	김영주
7월 31일(금) - 8월 7일(금)	6교구 2팀	김학철
7월 31일(금) - 8월 7일(금)	4교구 2팀	문영규
7월 31일(금) - 8월 8일(토)	16교구 3팀	김필화
7월 31일(금) - 8월 8일(토)	대학부 8팀	박성철
7월 31일(금) - 8월 8일(토)	중동2부 3팀	윤병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6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0일(월) - 7월 28일(화)	10교구 1팀	장지찬
7월 20일(월) - 7월 28일(화)	1교구 2팀	윤신환
7월 21일(화) - 7월 28일(화)	대학부 5팀	박봉선
7월 21일(화) - 7월 29일(수)	2교구 2팀	전성진
7월 21일(화) - 7월 30일(목)	2교구 3팀	허만선
7월 23일(목) - 7월 31일(금)	20교구 2팀	강석화



기도와 전도에 대해



학교 방학식을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곧바로 교회 수련회에 갔다. 학교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까이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우산을 들고 길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비를 조금만 맞았다.

이번 수련회 때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 배웠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줄 알게 되었다. 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 태권도 시합을 볼 때 하나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전도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다.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 친구 근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나도 용기를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보물찾기 시간에는 성경말씀 종이 폭지를 빨리 찾아서 연결해야 하는데 우리 조가 제일 빨리 찾았다. 수련회를 하루만 하지 말고 전처럼 교회에서 자면서 했으면 좋겠다.

정민호(초동부, 예비다부)

십자가의 정애부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따라 은빛라는 단어와 함께 소망부로 기리고 하신다. 장엔지 모르게 장년3부에 일 년이라도 더 갔다 싶으면 하던 차에 장년4부가 신설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년4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았으나 포근하고 아늑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깨닫지 못한 십자가의 복음을 세밀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재조명하여 보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도와 뱀열로 올라가자는 말씀을 통해 은혜 풍성히 받고, 귀한 만나와 코이노니아 친교를 통해 받은 은혜는 일상사에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달란트를 통하여 기쁨의 재충전을 가졌으며 빈틈없이 짜여진 순서와 함께 아름답게 진행된 수련회였습니다.

장년4부는 소망부로 가는 전초기지에 모인 십자가의 정애부대와 생각합니다. 노병은 결코 늙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검검으로 꼼꼼히 짜여져 가는 삶을 살고 하루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같이도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자가 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영문(은빛권사, 장년4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쏟아 붓듯이 내리는 세한 비속에 열린 장년1부 수련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나의 마음과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완악한 이 말세에 생명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며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는 다시 한 번 깨졌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빚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대보다 영적으로 나은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최악은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해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백성이 될 것을 부르짖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겼다. 성경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도로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의 될 것을 다짐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권선주(성도, 장년1부)



성령의 단비

계속되던 장마 중에서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다리던 성도님들의 간구 속에 좋은 날을 허락해주셨다. 일정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 간간히 내리는 비는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었고 은혜의 단비로 옷을 입혀 주셨다. 하던 일,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원근 각처에서 물러난 지체들의 얼굴엔 한해 전반기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며 후반기의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로 다짐하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주제처럼은 십자가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비하심으로 자녀된 신분을 갖고 전도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외침이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 우리 이웃들에게와 열방으로 나가는 심령들과 마음으로 기도 등으로 참여하는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양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케 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길 기도한다.

인통개(집사, 장년2부)

영적 무장

장년3부 영적 행렬이 시작되었다. 날씨도 무더워 잠시라도 손에 부채가 떨어질 세라면 땀이 주르륵 흐르는 무더운 여름, 삼삼오오 짙은 지어 아름다운 성도들이 교제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1박 2일 코스로 치지될 연세이려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장한 타인인 지가엔 환한 미소와 성전을 향해 가볍게 움직였다. 어떤 분들은 행여라도 말씀을 놓칠세라 필기하시며 예배드렸다. 주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목사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년3부 학생들이다. 나그네 길 60을 넘어 70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저녁집회 후에 친교시간을 각 과별로 마치고 열림관, 에스더관, 다니엘관으로 반끼리 묶어 속소를 배정받았는데 반만에 소중 나온 어린이들처럼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달려진 문들 사이로 울려 퍼진다. "호호 하하."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기도원 방들을 내 집처럼 개조한 타인인 한 사람도 불쌍 없이 주님의 품에서 심을 얻는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새벽시간을 주님께 드린 후 교구별로 농사짓는 밭을 향해 움직인다. 어떤 교구는 오이와 토마토가 주렁주렁, 탐스런 호박과 방긋 웃는 아몬드 감자, 고구마, 각종 야채들. 저들은 풍성함을 뽐내기라도 한 듯 우뚝 서 있다. 성도들의 땅방울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보석같이 빛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예수의 종이 될 것을 마음 편에 새기고 돌아오는 풍성한 수련회였다.

김영구(권사, 장년3부)



정지기칼럼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어느 날 꿈 속에서 새 신발을 신고서 마을에 기대를 가졌던 때가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 찬양을 준비했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라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리기 전 교회로부터 한 찬양대를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놀라운 구주야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왜 그런 꿈을 가졌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나에겐 많은 꿈들이 있었다. 지금은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예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였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목사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양을 돌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양은 것 같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오 늘도 난 선한 목자가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순간 순간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 샅근 목자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물에 빠져 온 몸이 젖어 무거운 때처럼 원거리를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나 또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양이기에 말이다. 늘 찬양하러 올라가기 전 마음으로 기도한다. “주님, 저 못하는 것 다 아시지요? 그저 구원의 잔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렇다! 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약한 어린 양이다. 그러나 주님께선 예수님 닮아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신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사람으로 돌보는 작은 목자가 되고 싶다.



이상민

(집사, 예쁜전양대)

수화 칼럼 ⑩ 사도 신경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자와 영생은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그 증표다. 그 증표에 기록된 믿음의 지도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순종한 신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구는 우리를 참 회개와 길로 이끌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1. 영원히



2. 사는



3. 것을



4. 믿사옵나이다



5. 아멘



영혼의 쉼터, 충현기도원

무더운 여름이다. 더위에 밤잠을 설치다 보면 하루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 또는 산으로 더위를 피한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쉼터가 있다. 그곳은 예수님의 품이다(마 11:28).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인 영혼의 쉼터, 충현기도원으로 휴가지를 정해 보자. 충현기도원에는 새봄과 리모델링한 기도원의 숙소인 다니엘·에스더관, 콘도식 숙소인 엘림관이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11	올라지	25	외선부	이득혜(5)	1224	신율심	7	장년2부	정종현(23)
1212	양재영	2	청년1부	권운숙(2)	1225	이순지	21	장년3부	강성자(18)
1213	이관정	17	장년1부	김근아(1)	1226	김석현	19	고등부	박경희(1)
1214	서우원	17	초등부	김근아(1)	1227	이계옥	19	고등부	박경희(1)
1215	서민경	17	유년부	김근아(1)	1228	김혜인	11	대학부	이연진(22)
1216	윤진희	4	장년2부	장상길(2)	1229	황연자	14	장년2부	권경애(14)
1217	나기운	23	장년1부	황규리(23)	1230	권익성	5	대학부	송희명(5)
1218	박아름	12	장년1부	이근덕(2)	1231	유영순	4	장년2부	최연희(4)
1219	안광원	19	장년3부	정원호(10)	1232	이보라	23	청년1부	
1220	김미자	23	장년2부	서혜정(2)	1233	박지수	6	대학부	
1221	이현옥	8	장년2부	강인명(17)	1234	김익환	14	청년1부	이분옥(10)
1222	송지현	17	청년1부		1235	이재준	22	대학부	이정희(22)
1223	이규원	23	청년1부	한남수(13)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길현	김승곤	1월 2주
차경호	장사미	1월 3주
안석원	장건곤	김장국
최기우	양봉호	4월 4주
전희재	김신국	전세식
홍기우	12월 2주	최도원
구재한	수두신	유상재
조종우	제1교장	이성현
신광철	정광수	이복섭
신승희	12월 3주	25년교장
양기주	김대식	김철환
4월 2주	5월 4주	최교장
장철현	정재동	이세영
김원희	12월 4주	김소현
이보신	이상재	김소호
교장부	13교장	
수정장	최재진	김홍기
목장부	양봉호	김정호
박성범	이성봉	지규성
사계절책임부	최민부장	최민호